

2020 은빛대학 신입생 모집

접수 날짜: 12월 1일, 8일, 15일 (3주간)
접수 시간: 오전 8시 - 오전 10시 30분

“예비자 교리를 시작 합니다.”

입교: 11월 30일(주일) 까지 입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세례식: 2020년 5월 17일(주일) 10시 30분 미사

교구 성체거동 행렬 및 기도신청

- 일시: 11월 24일(주일) 오후 2시 30분
- 모임 장소: Pitt St 와 Martin Place 에서 출발 (ANZ 은행 앞 광장)
- 성체거동 행렬시 모든 참석자들은 기도 대상자들을 지향에 두고 기도하면서 행렬을 합니다. 기도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성체거동 행렬 Pray Book (본당앞 주보대에 비치)
- 주관: 사목회 전례분과 위원회
- 문의: 전례분과 위원장
*** Martin Place 역이나 Wynyard 역에서 도보로 5분 ***

건축 위원회 회의

- 일시: 11월21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장소: 라파엘방

ME 송년 모임

- 일시: 11월26일(화) 오후 6시 30분
- 대상: 본당의 모든 ME 가족 (식사 무료제공)
- 장소: 본당 기념관
- 문의: 대표부부: 0413 497 701

유아세례 일정

- 부모교육: 2차 (11월 20일), 3차 (12월 4일)
- 시간: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미카엘방
- 세례 예정일: 12월 14일(토)

성령봉사회 미사

- 일시: 11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

초, 중고등부 통합미사

- 일시: 11월 30일(토) 오후 5시 30분 미사
- 오후 4시 미사는 없습니다.

사목회의

- 일시: 11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강완숙 골롬바 기도의 집

구역장 회의

- 날짜: 11월 24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시 30분 부터
- 장소: 미카엘방
- 교구 성체거동행렬 참석을 위해 구역장/반장 교육은 없습니다.

은빛대학 종강연 및 Term 4 종강

- 날짜: 11월 28일(목) 9시 30분 미사 로 시작
- 장소: 기념관
*** 10주년 사진전 전시가 있습니다 ***

목요 바실리오 성경강좌 종강

- 날짜: 11월 28일(목)

세례 후 신앙 교리교육 (기쁨, 사랑, 희망반)

- 일시: 11월 24일(주일) 오전 9시 - 오전 10시 10분
- 장소: 강완숙 골롬바 기도의 집

중고등부 캠프

- 캠프 장소: WEC Yarabah Conference Centre, Morisset
- 캠프 날짜: 2020년 1월 3~5일 (금~주일)
- 참가인원: 선착순 140명
- 접수기간: 11월 9일 ~ 12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미사후
- 문의: 우정선 모니카 (캠프 장) - 0420 391 451
김규동 바오로 (중고등부 교감) - 0411 950 954

가톨릭 테니스 동호회

- 일시: 12월 부터 주1회 (수요일) 오후 8:00 - 10:00
- 장소: Auburn 테니스 센터
- 신청: 최진철 알베르토 (0448 544 333) 문자 신청
- 마감: 11월30일(토) 까지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 음식물을 남기지 말고 음식 리필문화 실천하자: 토요일, 주일 중식, 연도 음식물을 간소화 (예: 1식3찬) 하여 음식물 낭비를 줄이자.

곽승룡 신부와 함께 토요일 아침을... Breakfast with Jesus

- 언제: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 오전 8시 30분-
- 장소: 강완숙 골롬바 기도의 집 (기도 Cafe 후)
*** 청소년 청년 성인 교우 누구나 초대해요 ***

주일 봉사

■ 17/11 6구역

■ 24/11, 1/12 7구역

■ 8, 15/12 8구역

■ 22, 29/12 9구역

소고기 콩나물 비빔밥 10 구역

사무실 업무시간	수, 목: 09:00 - 15:00 / 18:30 - 20:30 금: 09:00 - 15:00 토: 09:00 - 13:00 / 16: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봉헌금	교무금	기타	미사 참례수
		\$1,759.45	\$20,116.75	\$180.00	1,870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2019. 11. 17(다해) / 제277호

시드니 한인 가톨릭 주보

주임신부: 곽승룡 비오
보좌신부: 김경수 바오로, 김재준 알베르토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이미영 베르타, 김영애 켈마
최미란 님미아
사목회장: 이성복 요셉

한국 순교자와 성 스타니슬라오 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사목지표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느님과 일치하는 신앙생활

“자기 자신 안에 계시는 하느님 만나기.”
“Meet God Within You”

공동체 생활: ‘온전한 믿음’ 키우기
이웃을 부분적으로 보다 온전히 이해하기(1코린 13,12), 쉬는 교우, 주일학교 및 한글학교, 은빛대학, 젊은이 미사에 관심 갖기, 반모임(말씀 나눔 실천), 신심단체(레지오, 울뜨레아, 성령기도회, ME, 카나, 홀리패밀리), 봉사단체(성모회, 자모회, 연령회, 전례봉사단등)에 참여하고, 한 분 초대하기.

매일 강론
facebook.com/frpiuskwak
성경 교리 주일강론 특강
youtube.com/sydneykccm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9년도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느님과 주임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주교회의는1 968년부터 “평신도 주일”을 제정해서 평신도가 사제직과 마찬가지로 사도직에 불리면 받은 신자임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빛나는 전통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여 교회를 세우고 가꾸고 지켜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00여 년의 긴 박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선조 평신도들은 목숨을 바치면서 천주교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가 그리스도를 증거가 됐던 것처럼 우리 평신도들도 선조들의 신앙심을 이어받아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를 발전 시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곽승룡 비오 주임 신부님께서는 우리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의 사목 지표를 하느님과 일치하는 신앙생활 (자기 자신 안에 계시는 하느님 만나기)로 정하고 4일치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주임신부님께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선교, 이웃사랑, 지구사랑 그리고 사랑의 터전인 가정에 그 밑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신도들이 우리들은 세속의 삶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면서 선교에 앞장서야 합니다. 선교는 누구를 교회로 인도하여 세례를 받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진정한 선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진정한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랑이 넘칠 때 선교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인으로서 참된 소명과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평신도이다’라고 들어온 우리들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할까요?

미사시간 안내	
월 화 수 목 토	7:30 pm 7:00 am 9:30 am, 7:30 pm 9:30 am, 7:30 pm 9:30 am, 7:30 pm 9:30 am
토 요 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 일	6:30 am, 8:3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시 티	5:00 pm (시티)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첫째,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봉사할 때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마음을 모아 본당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재정에 협력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발전과 성화를 위해 성직자와 수도자의 협력자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우리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 할 때 교회의 발전이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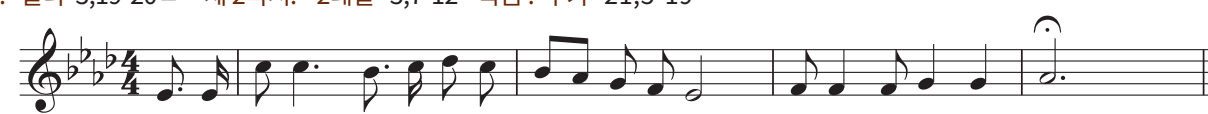
둘째, 우리는 교회의 아픔을 우리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 감싸주고 다독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다양한 아픔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죄가 많은 사람이 그 죄를 씻고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찾아오는 곳입니다. 저 또한 하느님께 많은 죄를 짓고, 또 많은 죄를 용서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매번 새롭게 태어나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는 말씀대로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또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아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참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교회가 우리들뿐아니라 ‘자연’도 함께 염려하고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자연도 창조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고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태적 삶의 궁극적인 출발점인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창조 질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물 남겨 버리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분리수거 하기 등 작은것부터 시작하여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방지 등 중요한 자연보호 실천들은 분명 우리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봉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례성가 / 화답송

(2면 하단 계속 ..)

전례성가: 입당: 41 봉헌: 513, 220, 340 성체: 174, 188, 197 파견: 436 (수정판)
제 1독서: 마라 3,19-20ㄴ 제 2독서: 2테살 3,7-12 복음: 루카 21,5-19

화답송: 
백 성 들 을 올 바 르 게 다 스 리 려 주 님 이 오 신 다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



10일(주일) 교중 미사 후 기념관에서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가 있었다. 이날 3개월 동안 준비한 성곡공연 후 개근상, 전교상, 우수Pr.상, 설립 Pr. 및 분단 Pr.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김재준 알베르토 신부님 영명축일



10일(주일) 교중 미사 중 11월 15일(금) 영명축일을 맞이하시는 김재준 알베르토 신부님을 위해 공동체가 기쁜 마음으로 축하했다.

1면 글 계속 ...

셋째,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의 변화는 사회와 교회 그리고 세상 변화의 시작이자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같이 돕고, 봉사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운데 가정이 사랑의 학교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해질 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 또한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입니다.

지난 8월 저희 본당을 사목 방문하셨던 테리 브레디 주교님의 권고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회의 운영과 사회복지실천, 지구환경 생태보존,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신앙연계를 갖는 일 등 성찰과 변화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는 실천하도록 노력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행사에 묵묵히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민 생활 속에서 신앙의 터전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많은 교우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없었다면 우리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는 이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로 겸손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드니 한인 공동체가 사랑과 기쁨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아갑시다. 형제자매님들 한분한분께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시고 많은 은총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복 요셉 사목회장

윤성균 가브리엘 신부님의 편지



+찬미예수,
광비오 신부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온양 융화동 본당 파이프 오르간
봉헌 기념 음악회에 호주 Sydney 대교구
한인 천주교회 사목회의 협조와 참석으로
아주 풍성하게 좋은 모습으로 끝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 날씨는 완연한 가을 날씨로 조석한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그곳 날씨도

이곳과는 조금 다르지만, 몸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청하면서 신부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노심초사
사목하시는 모습을 통해 교우분들이 많은 은총을 받기를 축원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곳과는 다른 문화와 언어의 어려움 속에 쉬운 일보다는
풀어야 할 업무가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어떤 사목을 하시더라도 교우분들이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느끼고
신부님 자신도 기분 좋은 생활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끝으로 영육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축복과
함께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드립니다.

재차 이곳 봉헌 기념 음악회에 신부님의 넓은 아량으로 사목회 관심과
참여 그리고 축하 꽃다발과 보내주신 향기나는 난 화분 등에 큰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성가대 참석으로 성향리에 큰 기쁨과 함께 주님의 축복을 느끼며
잘 마쳤습니다. 매번 하시는 일에 그리고 Sydney 대교구 한인 천주교회
교우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큰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윤신부 드림

그리스도 왕 대축일/루카 23,35-43(11월)

주제어: 그리스도 왕

“네가 유대인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37절)
▶ 위의 질문은 주님께서 광야의 유혹에서부터 악마에게서 들었던 유혹이고 조롱입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백성의 지도자들에 반정거리는 말투로 경멸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을까요? 그것을 나누어보세요.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42절)
▶ 위와 같이 섰던 도둑은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며’ 예수님께 의탁하고 청원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착한 도둑을 보고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나누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43절)

▶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착한 도둑의 청원에 예수님께서서는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그의 청원에 즉각 응답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청원을 했을 때, 응답받았던 어떤 경험(물질만이 아니라 영적 체험)이 있나요? 그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그것을 나누어 보세요.

※그 외 성경구절

위 성경구절 외에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 혹은 느낌은 무엇입니까?)

11월 활동토의(제시문)

1.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가족, 레지오 단원들, 구역반원들, 청년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묘지를 방문하고 연옥영혼들을 위한 연도를 바치고, 전대사도 연도록 실천해봅시다.

2. 2019년 사목지표를 읽고 매주 자기 점검(self-checking)하기

소공동체 반모임



11월 8일 (금) 11구역 4 반



11월 8일 (금) 10 구역 5/6 반

360 dental care
미스루모도 360 덴탈케어 치과
16/18 Rowe St. Eastwood
9051 2828
민중과 신력으로
당신의 치아건강을
책임집니다
용용기 요법
◆ 모든 분야의 치료 진료
◆ 전문적이고 성숙한 진료
◆ 연령, 상황에 따른 맞춤 진료

LITTLE ELEPHANT studio
만학 | 뉴본 | 아기 전문 스튜디오
T. 0404 123 788
Kakao ID. littleelephant

부엌가구 • 일반가구 • 인테리어 • 주문제작 공장 직영
TOTAL KITCHEN
MOBILE: 0414.654.077 PHONE: 02.9737.9033
E-MAIL ADDRESS: TOTAL.KITCHEN@HOTMAIL.COM
ADDRESS: 67-69 DERBY ST SILVERWATER

피부 바디 02 9747 5227
0426 722 808
meesunrang

초등전문 영어수학과외
특수 토론 수업 • 다중지능 적성검사
유학생 집중관리 프로그램
UNSW법대, 의대 강사진
0426 908 282
참가비도
도보1분

한진운송
최다차량 보유 8대
국내/해외 전문 0431 24 24 24
대표 허요셉 9648 2424

RUHENS 루헨스
직수 직수 직수
직수형 정수기
https://youtu.be/gccxPPuQCV8
다이아몬드 거산 정수기
M 0416 1004 99 T 9643 9999

McGrath
James Jin 제임스 진
Licensed Real Estate Agent
0404 071 060
jamesjin@mcgrath.com.au

항공/해상 택배, 통관, 창고보관, 기업 물류 전문
TNS
TNS GLOBAL LOGISTICS
김민선 아셀라 카카오톡: TNSAIR
0410 868 052 / cs@tnslogistics.com

프리미엄 생연어회
회 덮밥용 • 니기리용 • Sashimi Grade
전화번호(문자 오더): 0411 454 314

CHAMPION PROPERTY 챔피언 부동산
임대(RENT) 관리 / OFF THE PLAN 매물
HANS KIM LAWYER
의뢰인의 문제는
저희의 문제입니다.
정성주 (바오로) 0425 385 652

시드니 전지역 판매 및 관리
BETTER REALTY
Harry Park
0419 030 826
좋은부동산

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시드니 전지역 판매
크리스토퍼 조항민 0418 206 007 (7days)
사무실: Lidcombe / Seven Hills

유학 이민
MKL SYDNEY
학 교 상 담
비 자 상 담
T. 0420 200 303 MKLSydney

Miracle Finance
주택용자 • 재용자 • 상업건물 용자
고준서 0408 815 816
austarko@hotmail.com

AIR CONDITIONING AND ELECTRICAL
Contractor Licence No. 254766C
필요한 전문가 에어컨 모든 전기 소방전기
JUSTIN COOL
친절한 무료상담 / 오만경찰 / 책임보증 / 최단가액 0411 169 320